

보라매조깅

19910728 주일 하늘의 연단 욥23:10

전에는 아침마다 조깅(jogging)하러 가면 이놈이 제재(制裁)하고 저놈이 제재하고 하다 못해 보라매 공원 수위가 잔디에서 잠깐 사진 찍는다고 “나가! 나가!” 하면서 소리를 껍 껍 질렀습니다. 내 마당이 아니고 관리자가 나가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화가 나서 안나가고 계속 있었더니 수위가 웅실거리면서 쫓아왔습니다.

“안들려?”

“소리 좀 작게 하시오. 내 귀청 떨어지면 책임질거요?”

“왜 잔디밭에 들어갔소?”

“사진 좀 찍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했더니 막 야단치길래 “과장이십니까?” 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

“이 사람아! 내가 물으면 대답해. 자네만 높은 직에 있어? 나도 높은 직에 있어! 자네하고 나하고 한 번 버터볼까? 무슨 직인지 한 번 볼까? 자네, 내가 무슨 직에 있는지 모르잖아. 이리 와! 제대로 서! 빨리 차렷 자세로 서라니까. 서! 임마! 자식, 무슨 직인지도 모르고 서 말이야. 나이가 많은 적든 정부는 주권자 밑에 직책 아니냐? 너, 내가 무슨 사명인지 모르지? 일단 알 때까지 서있어봐. 너, 임마! 잔디가 왜 이렇게 뽑아지게 놔뒀어? 어떤 놈들이 밟아댄거야? 너, 이름 뭐야?”

했더니 그때서야 “아, 내가 밟아대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먼젓번에 국민학생들이 썼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놈이 쓰라고 한거야?”

“소장이 쓰라고 했습니다.”

“소장인가 뭐인가 정말로 형편도 없네.”

보라매 공원 소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 때 대통령의 조카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국민 아니냐? 내가 사진 좀 찍고 가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뭐하려고 찍는지 알아? 내가 누군지 모르지? 혼나야 되겠구먼. 내가 밥통 땔거야. 알았어? 끝났지? 내가 계획적으로 밥 못먹게 만든다는 거야. 이 직장 그만 다니지. 내가 네 밥통 땔 수 있는 직책을 가졌으니까. 새끼, 알아보지도 않고 소리 껍 껍 지르고 있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꽤썸해죽겠네. 탄 놈들이 다 밟아대서 잔디 죽여놓고. 내가 몇 번이나 밟았어? 사진 좀 한 번 찍고 나가는데 소리를 그렇게 질러? 네 주권이 그렇게 커? 저런 것들이 주권 높으면 큰 사고 나니까 안돼. 국민들이 고달프니까 안돼.”

“직책이 뭘니까?”

“나는 관악구 문화위원장이다. 이런 것 관리하는 사람이다.”

“잘못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학생인 줄 알았어? 청년인 줄 알았어? 분명히 너, 내가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것을 사적(私的)으로 알았잖아? 그런데 언제 그렇게 욕 얻어먹을 짓 했어? 너, 기독교 다니냐?” 그랬더니 애들이 쫓아가서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 때 내가 지금 경제수석 비서관이 된 김종인씨하고 같이 일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문화위원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별로 안했지요.

그리고 나서 또 보라매 수영장에 갔더니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길래 “너, 이리와!”

그랬습니다.

“수질(水質)이 이게 뭐냐?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소리를 계속 지르냐? 더러워서 못보겠다.”

“당신 누구요?”

“내 직책 알면 당신, 곤란해. 이야기할만 하니까 이야기 하는거야.”

“물 같은지 얼마 안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적당히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왜 우리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호랑이인가 고양이인가. 고양이가 호랑이 앞에서 소리 지르다가 잡아먹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고 지도자 오라고 해서 “나, 여기 문화위원장인데 이렇게 해서 쓰겠어? 왜 소리만 지르게 만들어? 나, 간 떨어져서 죽을 뻔 했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도 소리 질러볼까?” 하고서 소리를 껍뻍 질렀습니다.

“야, 임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뭐야? 내가 세금 바치는걸 네가

봉급으로 먹잖아! 똑똑히 해! 양심적으로 살아!”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엠에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잘은 못해줘도 자기 어머니가 마음이 좋아서 어느 정도는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경상도 지역의 도지사가 되어서 자기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생 때 제대로 못도와줘서 죄송했다고 하니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자식같이 대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고마워서 전화 한 통 했는데 언제 한번 점심이나 함께 하시지요. 자녀들 문제로 부탁하시면 도와드리겠으니 부탁하십시오.” 하더군요. 그런데 그 후에 그동안 해준 것이 없고 너무 미안해서 뭣 하나 부탁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크다보면 누가 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도끼를 드는 도지사가 나올지 시장바구니를 메고 다니는 시장이 나올지 장관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한번은 또 보라매 공원 수위가 우리가 매일 오후 2시까지 운동만 하니까 우리 단체를 보고 날라리, 백수건달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싸움하거나 말 한마디만 잘 못하면 나한테 혼나니까 잘 안싸웁니다.

그런데 못난 놈도 자기 못난 맛에 산다고 수위들이 한 평 남짓한 수위실에 틀어박혀서 호각불면서 다른 차들은 금방금방 통과시키는데 내 차가 지나갈 때는 한참이나 세워놓았다가 보내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주권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수백명, 수천명씩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생각을 좀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원이 확인되었으면 보내는 것입니다.

한번은 수위가 껄뻘하게 내가 탄 봉고차를 안들여보내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꼭 들여보내야 하는데 내 차만 안들여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들여보냅니까?”

“여기에 차는 안들여보냅니다.”

“자가용차는 들여보내고 봉고차는 안들여보냅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수위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리 들어와. 노인네가 나보다 한 10살쯤 더 먹은

것 같은데 이리 들어와. 나도 같이 늙어가고 있어. 수위? 대단해. 문 잠귀. 나 누군지 모르지?”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차를 세우고 함부로 안들여보내? 엇그저께 안테나 길게 빼고 승용차 4대 지나갈 때 분명히 봤지? 그 때 내가 거기에 탔어. 시청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타고 왔는데 그때는 막 인사하고 그랬지? 내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 미안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구, 미안해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거야. 보라매 공원 안의 건물 때문에 온거야. 그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인사하더니만 봉고 타고 온다고 이렇게 해? 정말 없는 놈은 더러워서 못살겠구먼. 내가 내일 아침에는 안테나 길다란 것을 세워놓고 올께.” (웃음)

그 때 내가 화가 나서 한동안 안테나를 달고 다녔습니다. 안테나를 보면 모두 겁나서 인사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수위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왜 우리 애들 보고 백수건달이니 무슨 건달이니 그래? 당신 보다 나야. 당신, 얼마 받아? 한 30만원 받아? 아이고, 그거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애들 껌값도 안돼. 나보고 건달이라고 했지? 애들이 건달이면 나는 대장이니까 상건달이겠네. (웃음) 나는 보통 하루에 100만원 썬. 어느 때는 500만원, 1000만원 쓸 때도 있어. 내가 건달이라고? 아이고, 기가 막혀서. 그랜저 왔다갔다 하는게 내 차야. 나, 평창동에서 여봐란듯이 사는 사람이야. 건달 좋아하네. 당신같은 사람들, 내 밑에 무진장 많아. 대학교 공부 끝나고 데모[demonstration]하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잡아다가 데모하지 말고 이 공원이 비어있으니 여기서 놀라고 한거야. 그런데 왜 속도 모르면서 그래? 여기 문지기이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야? 당신 아들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길러? 무관심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든 헛일이야. 나이먹었으면 나이값 하시오. 내가 손윗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기가 뭇한데 그래서야 쓰겠소? 내 나이가 50대(代)에 육박하고 있어.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시오. 지금 전화해서 무조건 소장 바뀌어서 나에 대해서 아나 모르나 물어보시오.”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통을 뺐더라구요.

“한 번 혼 좀 나야 돼. 미역국 먹어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일 아침부로 미역국을 먹일거야.”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성질머리가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질이 그러면 집에서 고쳐야지 왜 나와서 써먹습니까? (웃음)

“당신이 그렇게 아니꼬운 짓 하는 걸 내가 한 7번을 참느라고 욕을 봤어.”

“잘못했습니다. 오늘부로 고치기로 하겠습니다.”

“고쳐야 돼. 그래야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자식들에게 대우 받지.”

그리고 나서 우리 엠에스 중에 그 방면의 관직에 있는 애들이 가서 “왜 우리 총재님이 들어갈 때마다 들볶습니까? 당신, 혼나고 싶어? 이게 직책이야?”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더라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 만났다는 소리 하지 마. 나도 그 앞에 가면 덜덜 떠는 데 건방지게 당신이 도대체 뭐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수위가 직책이 있어? 차나 몇 대 들어갔나 부지런히 세어보거나 할 것이지.” 하고 온 것입니다.